



내년 한국영화, 스타 배우·감독들의 귀환

5대 배급사 라인업 확정

시리즈물 강세·소재 다양

새해 한국영화 상차림 윤곽이 잡혔다. CJ엔터테인먼트·롯데엔터테인먼트·쇼박스·뉴(NEW)·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의 국내 5대 배급사는 내년 라인업을 최근 확정했다.

각 배급사에 따르면 내년에는 거장과 흥행감독, 중견 명장이 신작을 들고 대거 복귀한다. 송강호·한석규·최민식·이병헌·전도연 등 유명 배우도 복귀작을 예약한 상태다.

흥행 보증수표로 통하는 범죄 액션 장르가 여전히 강세인 가운데 다채로운 소재와 장르, 시리즈물 등이 새해 메뉴에 포함됐다.

◇ 유명 감독·배우 신작으로 복귀
봉준호 감독의 일곱 번째 장편 '기생충'(가제)은 내년 최대 기대작 중 하나다. '설국열차', '육자' 등을 통해 기발한 상상력으로 현실을 꼬집어온 봉 감독이 다시 가족으로 눈을 돌렸다. 전원 백수인 가택(송강호 분)네 장남 기우(최우식)가 박 사장(이선균)네 과외 선생 면접을 보러 가면서 벌어지는 예기치 않은 사건을 그렸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줄거리 전부다.

송강호는 '기생충'과 더불어 '나랏말싸미'(조철현 감독·메가박스)에도 출연한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 했지만,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를 그린 사극이다.

한석규와 최민식은 사극 '천문'(롯데)에 함께 출연한다. 세종대왕과 장영실 이야기로, 두 배우가 같은 작품에서 만나기는 1999년 '쉬리' 이후 20년 만이다. '덕혜옹주'의 허진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이병헌은 '내부자들'(2015) 이후 4년 만에 우민호 감독과 다시 손잡고, 신작 '남산의 부장들'(쇼박스)로 복귀한다. 1970년대 정치공작을 주도하며 시대를 풍미한 중앙정보부 부장들의 행적과 그 이면을 재조명해 화제를 모은 동명 책임원작이다.

전도연은 '생일'(이중헌·뉴)에서는 설경구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김용훈·메가박스)에선 정우성과 각각 호흡을 맞춘다. '생일'은 사고로 아이를 잃은 가족 이야기이며, '지푸라기라도...'는 일본 동명 소설이 원작인 미스터리 스릴러다.

정우성은 살인 용의자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지폐아 소녀(김향기)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중인'(이한·롯데)에서도 주연을 맡았다.

유준열은 주시 브로커를 앞세운 범죄 영화 '돈'(박누리·쇼박스), 뺑소니 사고 조사반 형사들의 활약을 그린 '뺑반'(한준희·쇼박스), 봉오동 전투를 다룬 '전투'(원신연·쇼박스) 세 편에 주연으로 이름을 올렸다.

◇ 내년에도 시리즈를 강세
올해 박스오피스 흥행 순위를 보면 '신과함께' 1,2편과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 '엔트맨과 와스프' '블랙팬서' 등 프랜차이즈 영화들이 10위권 안에 들며 강세를 보였다. 내년에도 관객 사랑을 받은 영화들의 속편 혹은 스피노프 버전(파생작)이 잇따라 선보인다.

권상우 주연 '귀수'(리진·CJ)는 2014년 356만명을 동원한 '신의 한 수' 스피노프, 비극으로 모든 것을 잃은 귀수의 사활을 건 복수를 그린 범죄 액션이다.

허영만 화백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타짜'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인 '타짜-원 아이드 잭'(권오광·롯데)도 내년 개봉한다. 짝궁의 아들 일출(박정민)이 사기도박에 휘말려 빛을 진 뒤 애꾸(류승룡)라는 남자를 만나 도박사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렸다.

'부산행', '염력'의 연상호 감독은 '반도'(뉴)를 차기작으로 골랐다. 1천만 명을 불러모은 '부산행' 속편으로, 이 영화 이후 5년 뒤 고립된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는 좀비 영화로 알려졌다.

'나쁜 녀석들: 더 무비'(스용호·CJ) 역시 동명 TV 드라마를 스크린에 옮긴 스피노프 버전이다. 마동석, 김강중, 김아중 등이 출연한다.

◇ 여성 주연 영화·독특한 소재
라미란과 이성경이 호흡을 맞춘 '걸캅스'(정다원·CJ)는 두 여형사가 우연히

범죄사건을 쫓게 되는 코믹액션 수사극이다. 이창동 감독의 '바닝'으로 주목받은 신예 전종서와 박신혜는 '롤'(이창현·뉴)에서 투톱을 맡았다. 서로 다른 시간대에 사는 두 여자가 한 통의 전화로 연결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스릴러물이다. 중견 배우 나문희와 아역배우 김수안은 '소공녀'(허인무·메가박스)로 관객을 찾는다.

다채로운 소재와 장르의 작품도 출격을 준비 중이다.

우리말 사용이 금지된 1940년대 까막눈 판수(유해진)가 조선어학회 대표 정환(윤계상)을 만나 사전을 만들기 위해 비밀리에 전국의 우리말을 모으는 이야기를 그린 '말모이'(염유나·롯데)는 내년 1월 개봉을 확정했다.

이정재와 박정민이 주연한 '사바하'(장재현·CJ)는 신홍 종교와 초현실적인 사건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다.

'청년경찰'로 흥행감독으로 떠오른 김주환 감독은 '사자'(롯데)로 복귀한다. 아버지를 잃은 격투기 선수가 구마사제를 만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의 사신과 최후 대결을 벌인다는 내용의 오컬트 영화다.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도 있다. 가솔 청소년 택일의 좌충우돌 세상 적응기를 다룬 '시동'(최정열)은 조금산 작가의 웹툰이 원작이다. '범죄도시' 강윤성 감독도 인기 웹툰 '툰리브더킹'(메가박스)을 스크린에 옮긴다.

/연합뉴스

“짧은 머리, 카메라 앞에서 숨을 곳 없어”

‘제3의 매력’ 중영 이윤지
“양동근 포용해주는 배우
서강준·이숨 정말 예뻐”



“해바라기” 속 김정은 선배님 사진을 보면서 아예 사발해볼까도 생각했었으니 이 정도는 별로 충격적이지 않았죠. 적어도 저한테는요.”

최근 중영한 JTBC 드라마 ‘제3의 매력’에서 백주란 역을 맡아 후반부 과감한 짧은 머리(쇼트컷)로 헤어스타일을 바꾼 배우 이윤지(34·사진)는 작품 속 초반 모습처럼 발랄하고 에너지가 넘쳤다.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워낙 짧은 머리를 좋아해서 그동안에도 일만 있으면 늘 자르려 했는데 이번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최종적으로 제가 정착할 머리가 아닐까 싶다”고 웃었다.

작은 얼굴에 큰 눈, 코, 입이 가득 찬 그는 15년 차 배우임에도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니 카메라 앞에서 도망갈 곳이 없어져 부끄러웠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제가 눈이 크잖아요. ‘장문’이 크다 보니 카메라를 숨길만 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성격이 더 밝아진 걸지도 모르겠어요. 기특이나 그런데 머리까지 이렇게 잘라버리면 지장을 아예 다 견어낸 느낌이고, 마치 손발을 숨길 수 없는 무대 위에 있는 것처럼 연기하게 되더라고요. 긴 머리의 도움을 전혀 못 받는 배우라니. 그런데 이럴 때 아예 날 것의 연기를 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나고 싶단 욕심도 들어요.”

이윤지가 이번에 연기한 백주란은 그저 코믹하고 발랄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암선교를 받으면서 깊은 감정 연기를 필요로 했다.

이윤지는 “처음부터 주란이 아플 것과, 수재(양동근 분)와 사랑하게 될 것을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초반에 일부러 좀 더 발랄하게 연기했다. 뒷부분에 더 극적으로 보였으면 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면서도 후반부를 예고하는 저만의 시그널들을 연

기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함께 호흡을 맞춘 양동근에 대해서는 “한없이 포용해주는 배우”라고 극찬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걱정도 좀 했어요. 양동근이란 배우의 색깔이 워낙 진하고, 그의 역할도 그럴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윤지의 주란이 빨강, 노랑, 파랑 같은 원색이라면 양동근의 수재는 무채색 느낌이라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했죠. 게다가 두 사람이 10회에야 만났잖아요. 초조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동근 오페는 제가 어떻게 연기하든 받아들 준비가 돼 있으셨어요. 수재가 자기의 아픔을 담담히 얘기할 때, 제 삶을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죠. 마냥 투정 부려도 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웃음)”

이윤지는 초반 늘 불어있었던 영재역의 이숨에 대해서도 “정말 의지를 많이 했다”며 “극 중 3분의 2는 영재와 보냈기 때문에 영재와의 관계를 쌓는 데 공을 더 많이 들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숨과 서강준, 두 배우가 초반에 서사와 감정을 잘 쌓아서 뒷집도 잘 발휘됐다고 생각한다. 두 배우가 정말 예뻐 보였다”고 덧붙혔다.

2003년 데뷔한 이윤지는 많은 작품에서 주·조연으로 활약했으며 2014년 10년 교제한 남편과 결혼했고, 이듬해 딸을 낳았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찬란한 밤상 스페셜	35 닥터 365 40 강남 스퀘드
9	30 KBS 뉴스	00 차탈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붉은 달 푸른 해(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죽어도 좋아(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붉은 달 푸른 해(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미디어세상 시청자와 통하는 TV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공룡 메가드	00 모두 하우스(재)	30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55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20 드래곤에그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비 55 내 사랑 치유기(재)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55 5 MBC 뉴스	00 접속! 무비월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라피	00 스페이스 벅스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5 실화탐사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kbc, tv 공동기획 특집다큐 시대를 사로잡은 전라도의 빛깔
7	00 KBS 뉴스 7 35 미니디Q	0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품자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살릴하는 남자들	55 실화탐사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숨터	00 죽어도 좋아	00 붉은 달 푸른 해	00 황후의 품격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제동	10 옥탑방의 문제아들 1~2부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0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5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small>갓김치와 각두기</small>)	17:15 엄마 까투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small>아시아동물기행</small> -5천년의 공존 인도네시아 물소)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꼬마버스 타요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EBS 초대석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 화산섬의 비밀
07:00 응감한 소방차 레이	13:00 독도채널e	19:30 EBS 뉴스
07:30 꼬마버스 타요	13:10 세상을 나쁜 개는 없다	19:50 메디컬 다큐 - 7요일
08:00 덩동당 유치원1~2	13:40 EBS 특별기획 (시대와의 대화)	20:40 세계테마기행 (<small>매혹의 광야 요르단과 이스라엘 3부 올리브 사이로, 제리루로</small>)
08:30 미니특공대X	14:30 코코몽3	21:30 한국기행 (<small>명당기행 3부 박사마을의 비밀</small>)
08:45 말랄라 뿌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50 EBS 다큐프라임
09:00 엄마 까투리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22:45 극한직업
09:30 원더볼즈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3:55 EBS 초대석
09:40 글로벌 아침 찾아 삼만리	16:15 응감한 소방차 레이	24:45 지식채널e
10:30 한국기행(재)	16:30 말랄라 뿌우(재)	
	16:45 덩동당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8일(음 10월 21일 甲子)

<p>36년생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롭다. 48년생 중요한 사실이 왜곡 되어질 수 있다. 60년생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72년생 빨리 정리 할수록 이롭다. 84년생 길운이 순조로움을 부르니 흥겨운 낯노래가 나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0, 11</p>	<p>42년생 금권에 휘둘리게 될 수다. 54년생 낮게 책정하는 것이 지출을 최소화하라. 66년생 내키지 않으면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78년생 막연히 부추기는 이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90년생 절실한 시기에 귀인의 도움이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87, 19</p>
<p>37년생 검토해 보고 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49년생 부실 해결 열려가 있다. 61년생 인식하고 있는 관점의 차원을 뛰어 넘는 파괴적인 일이 벌어질 수다. 73년생 아무런 이상이 없다. 85년생 행운을 전해주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리라. 행운의 숫자 : 46, 55</p>	<p>43년생 반가운 이로부터 듣는 말이 있을 것이다. 55년생 바라던 것이 드디어 들어오는 성운이다. 67년생 유리한 상황이 조성 될 것이다. 79년생 손질을 한다면 바람직한 판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91년생 사랑이 깊은 이는 미움 또한 깊은 법이다. 행운의 숫자 : 71, 30</p>
<p>38년생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50년생 한 번 시작하면 술술 풀려나가게 될 것이니라. 62년생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74년생 급히 반전되는 국세이다. 86년생 아색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으니 처신을 잘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85, 54</p>	<p>44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양보 하라. 56년생 각개의 현상이 주목하라. 68년생 부자연스럽다. 80년생 거시적인 안목으로 내다 볼 줄 알아야겠다. 92년생 자칫 잘못하다가는 풀러 갔다가 오히려 얽히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8, 49</p>
<p>39년생 불상사가 터질 수도 있다. 51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격량이 요동친다. 63년생 심혈을 기울인다면 출어 제 있던 것이 모아져서 힘이 될 것이다. 75년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87년생 일보 전진을 위한 것이라면 이보 후퇴도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28, 28</p>	<p>45년생 적용하기에는 미흡함이 상당하다. 57년생 장애 요소는 없으니 편안하게 진행시켜도 된다. 69년생 점점 내성이 생기면서 적용하게 될 것이다. 81년생 과욕한다 면 오히려 부작용을 받게 하리라. 93년생 잠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19, 07</p>
<p>40년생 따오기는 목욕을 하지 않아도 히다. 52년생 쉬 더운 구들이 쉬는 법이 아니라. 64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76년생 귀한 손님이 찾아올 것이니 맞이할 준비를 하라. 88년생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81, 34</p>	<p>34년생 구대에서 벗어나야만 새로운 면모를 도모하게 된다. 46년생 불합리한 점이 보일 것이니 속히 바로잡아 한다. 58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생산적이다. 70년생 일회성이기 수시로 교차하는 국면이다. 82년생 무너진 길을 고쳐 닦는 입장이 된다. 행운의 숫자 : 80, 73</p>
<p>41년생 다양함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이 절실하다. 53년생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애를 먹었다. 65년생 진행되고 있다면 중단시킬 필요가 없다. 77년생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니 기다려 보자. 89년생 취약점을 보완한 후에 재도전 하자. 행운의 숫자 : 93, 47</p>	<p>35년생 사실상 이루어질 가능성이 약하다. 47년생 한데 모아 비로소 갖추어질 것이다. 59년생 대체로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면서 실속이 있다. 71년생 경중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안배를 하라. 83년생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한다. 행운의 숫자 : 96, 32</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화영” ☎010-9790-8237